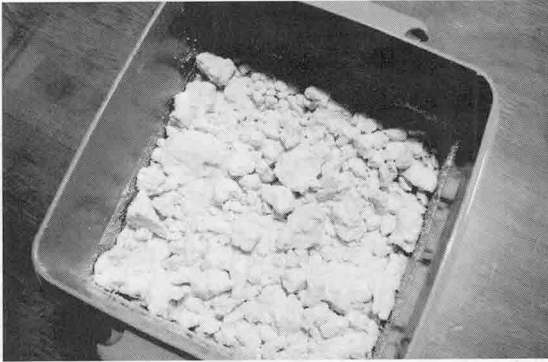


# 정부기관 소식

농림수산식품부  
소식



**국내 유통되는 육가공품 등 축산물에  
서는 멜라민 불검출**  
수입되는 중국산 알가공품 등에 대  
한 전수검사 계속 실시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쇠고기·오리고기 등 고기 및 육가공품, 알 및 알가공품 등 축산물 1,295점을 수거하여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4일에는 국내 유통 중인 육가공품 740점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9월 28일부터 수입되는 모든 중국산 축산물에 대해 멜라민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17일 현재까지 18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는 10월 16(목) 일본에 수입된 중국산 알가공품(제조사: 대련 하노버식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었다는 국내·외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금년 들어 동 제조회사에서 알가공품 111.5톤이 수입\*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국내 유통·보관 중인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10월 17일부터 수거 중에 있으

며, 수거되는 대로 신속하게 멜라민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1.5톤 중 9월 24일 수입되어 항구에 보관 중인 2건(11.5톤)은 수입업체가 자율적으로 전량 반송할 예정이라고 밝혀왔음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소식



**태국 등 아세안 국가, 선진 방역기술  
연수위해 방한**  
질병 진단 및 방역체계 향상에 기여  
할 듯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회원국의 조류인플루엔자 전문가들이 10월 20일부터 17일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경험과 진단기술을 전수받게 된다.

이번 사업은 2006년 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6차 아세안+3 농림장관 회의에서 아세안 국가들의 적극적 지지로 채택되었으며 2007년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대(對) 개도국 무상기술 협력사업 중 연수생 초청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연수는 10월 20일(월)~11월 5일(수)까지 진행되며 국내 최고의 수의전문기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연수를 담당하여 선진 진단기술 및 방역 경험을 전수하고, 아세안 국가간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해 보다 현장 교육을 한층 강화하여 국내 가축방역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경북궁, 난타 공연관람 등 다채로운 친교 행사를 통해 다양한 한국 문화체험을 제공하게 된다.

※훈련 참가국 현황(8개국, 18명) :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농촌경제연구원  
소식



### 농촌경제연구원 11대 원장에 오세익 (吳世翼) 박사 임명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김세원(金世源) 이사장은 10월 8일 임기 3년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11대 원장에 오세익(吳世翼, 60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 부원장을 임명했다. (임기: 2008년 10월 8일~2011년 10월 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1대 원장에 임명된 오세익 박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농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에서 농업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에서 농업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오세익 원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생산경제연구부장, 농업관측정보센터장, 기획조정실장, 부원장과 부설 농림기술관리센터 기획평가실장을 역임했고, 대통령자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제1분과위원장,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농업기술협력위원회((APEC/ATCWG) 의장으로 활동했다.

농자재, 친환경농업, 시설농업, 농림수산기술정책, 농산물 협상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다수의 논문을 집필·발간했다.

농촌진흥청  
소식



### 농촌진흥청, 현장·수요자 중심 조직 으로 전면개편

본청 1관 3국 19과, 소속기관 5개 기관(4기관 폐지, 고위공무원 1명, 4급 이하 98명 감축)

농촌진흥청(청장 이수화)은 9월 30일 「농촌진흥청 직제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962년 농촌진흥청 개청 이래 최대규모로 개편되어 우리농업을 국가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생명과학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농업인, 소비자에게 실익을 드릴 수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 한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농가경영비 경감을 위한 현장 중심의 실용기술개발과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미래 농업성장 동력 기초과학기술 개발 및 국제기술협력 강화,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특성화를 위한 조직개편으로 농업인, 현장, 실수요자에게 한층 더 실익이 갈 수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하여 「국민을 잘 섬기는 작고 유능한 정부」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농촌진흥청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DNA, 유전자 등 첨단농업기술, 농업현장 실용화, 농식품 안전관리 및 세계화 연구에 집중하고 동북아 농식품 R&D허브를 구축하여 「세계일류(G7) 농업강국」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축산과학원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조직을 기존의 2부 13과 2시험장 1팀에서 2부 11과 1팀 1센터 2시험장 1출장소로 개편하였으며 또한 난지농업연구소의 축산기능을 이관 받아 국립축산과학원으로 개편하고, 그 밑에 축산생명환경부·축산자원개발부 및 초지사료연구센터·한우시험장 및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을 둔다.